

## 거친 들에 씨를 뿌린 자는 들을 잇기 어렵나니

한 희 철 (목사, 강원 원주 단강교회)

### 꿈같은 시간

어느덧 미국을 다녀온 지 네 달이 지나간다. 또렷한 기억을 남긴 시간인지라 그 시간은 시간 안에 불박이로 서서 다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관조할 것 같았지만 아니다, 시간은 함께 흘러간다.

이따금씩 그 일을 소중하게 기억하는 이들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아이들이 미국 다녀와서 어떤 것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내 대답은 공해진다. 대답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다. 대답이 공한 것은 성급함 아닌가 싶은 마음 때문이다. 씨앗을 뿌리고 돌아온 사람에게 “추수 많이 했어요?” 묻는 것 아닌가, 그렇다, 희망이라는 씨를 뿌렸을 뿐이고 이젠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비야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니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리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리라. 조금하게 소출을 계산하지 않으리라.

다시 생각해도 꿈과 같은 시간이었다. 아니 정말로 우리는 긴 꿈 하나를 꾸는 것인지도 모른다. 9박 10일간 전교생이 24명

뿐만 한 시골학교 어린이들과 네 분의 선생님들이 미국 여행을 다녀온 일은 긴 꿈을 다함께 꾸는 것인지도 모른다. 새가 되고 나비가 되어 마음껏 세상을 날았던 꿈, 꿈이었다 해도 서운하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마다 그랬다. 꿈 같은 이야기라고, 기울어져 가는 농촌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혹하기는 하나 현실로 이루기에는 불가능한 무모한 일이라고들 했다. 한 사람이 외국을 다녀오는 일도 쉽지 않고, 한 가족이 다녀오는 것도 드문 일인데 아무리 작더라도 한 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외국을 다녀오다니, 엉뚱한 명분이나 구실 아니냐는 시선들도 있었다. 애정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안쓰러운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곤 했다.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에는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도 많아 보였던 탓이다. 어수룩하고 무모해 보이는 꿈 하나를 처음 마음에 가질 때만 해도 그 꿈은 모두에게 낯설고 어설퍼다.

## 거꾸로 걷는 길

지난 해 단강을 떠나간 가정이 세 가정이다. 가정마다 두 명의 학생이 있는 젊은 가정이었다. 그들은 또한 단강교회 교인 가정이기도 했다.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아쉽고 학생 한 명이 귀한 시골에 한 해 세 가정이 떠나다니, 허전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데, 떠나며 남긴 자리는 너무도 컸다.

급작스러운 무너짐,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도미노 현상처럼 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 마음에만 두고 있던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다. 무엇으로라도 버팀목을 꺾어야 했다. 더는 학생이 없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단강초등학교,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마을의 미래가 사라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 가만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학교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나마

농촌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 학교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내게 그랬다.

엉뚱하고 무모해도 거꾸로 길을 걷고 싶었다. 길을 거꾸로 걸으며 “아니다!” 하고 싶었다. 숫자와 효율이 의미를 앞세우는 이 시대의 무감각한 흐름에 대해 그렇게라도 맞서고 싶었다. 폐교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자는 생각은 그만큼 역설적이었다. 다 키우지도 못한 채 동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어미 새의 안타까움 같은 것이었다. 호사스러운 일 아니냐는 생각이 아주 없진 않았지만 농촌의 아픔과 절망을 두곤 그런 생각 버리기로 했다. “넓은 세상을 향하여!”라고 우리가 시작하는 일의 이름을 정한 것은 그런 마음 때문이었다.

### 함께 짓는 농사

학부모 회의로 모여 처음 이야기를 꺼냈을 때 모두들 말이 없었다. 아무리 학교 운영위원장직을 맡았다지만 도무지 실감이 되지 않고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를 목사가 하니 뭐라 대꾸할 말이 마땅치 않았으리라. 어쩌면 “짧은 목사 양반, 꿈 깨시오!” 그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시골에 산다고 우릴 놀리는 거요.” 은근히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다.

막연해하는 학부모들에게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이루어갈 생각인지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 또한, 어쩌면 더욱 막연하게 들렸을 것이다.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였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함께 농사를 짓자고 권했다. 많은 부분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한다고 여겨졌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예선 농사만큼 좋은 일은 없어 보였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야 당연한 일, 막연한 일엔 무언가 구체적인 일이 필요했다. 농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체 역할도 할 것이었다. 경비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땀흘려

만든 돈, 그 돈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학부모들은 농사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야기를 처음 꺼낸 때가 지난 가을, 보리를 심기로 했다. 겨울을 이기고 파랗게 돋는 보리, 우리가 꿈꾸는 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도 좋아 보였다. 언 땅을 헤치고 나오는 보리를 아이들과 함께 밟으며 우리의 꿈을 이야기 하리라. 절망의 두께를 헤치려는 이 일의 의미를 아이들은 보리를 밟으며 어렵풋 느낄 수도 있으리라.

함께 보리를 심던 날의 감동은 오래갈 것이다. 하늘의 안개와 땅에서 솟는 김이 엉겨 하늘과 땅이 신비하게 어울린 이른 아침,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보리를 심었다. 트랙터를 몰고 경운기를 끌고, 삽과 괭이를 들고 모두들 모여 밭을 갈고 돌과 비닐을 걷어내고 씨를 뿌리며 땀을 흘렸다. 나는 그 날 맨발로(신을 벗었던 모세의 심정을 충분히 알 것 같았다) 밭을 오가며 하루종일 비료를 뿌렸다. 덕분에 며칠 몸살을 앓았지만 행복한 몸살이었다. 고구마를 심었던 밭인지라 밭을 갈자 밭에 숨어있던 고구마들이 제법 나왔는데, 좋은 새참이 되어 주었다. 당신 일들은 두고 밭으로 나와 보리씨를 뿌려주었던 마을 어른들의 우정을 오래 간직하고 싶다. 더없이 선한 격려였다. 꿈을 향한 구체적인 씨앗은 그렇게 뿌려지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경비 걱정을 했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돈을 미리 마련해 놓았던 것도 아니었고, 크게 믿는 구석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었다. 사실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경비 문제에 관해 마음이 편했던 것은 돈의 무서움을 모르는 천진함 때문이었다. 돈이야 정 없으면 꾸어서라도 가면 되고(누가 시골 목사에게 거금을 꾸어 주랴만 생각은 그렇게 편했다) 다녀와서 두고두고 갚으면 되는 것 아닌가, 경비 문제가 결정적인 걸림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라도 돈이 아니라는 경험과 함께, 필요한 부분은 주께서 채우시리라는 믿음도 아주 없지는 않았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일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사람의 욕심 아닐까, 주님의 뜻이 담겨 있기만 하다면 주께서 이끄실 것이다, 유력한 분을 후원회장으로 모시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그냥 허술한 대로 일을 이끌고 싶었던 것은 이 일의 총책임자가 주님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결코 쉽지 않을 이 일을 우리가 끝까지 한 마음으로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비자 발급까지의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일이 현실적인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졌다.

### 쉽지 않은 과정들

비자 발급까지의 과정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다. 여권을 만드는 일부터가 그랬다. 가정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요구하는 서류는 일방적이었다. 현행 호주제는 문제가 많은 제도였다. 이혼한 가정의 경우 사정이 다 다른데 요구하는 서류는 무조건 호주의 서류였다. 아버지와 연락이 안 닿으면 여권조차도 낼 수가 없었다. 인감 도장을 찍어야하는 곳에 일반 도장을 찍어도 안 되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 다시 도장을 받아야 하고, 이런 저런 문제에 부딪히며 헤쳐가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여권과 비자를 위한 적지 않은 서류를 만드느라 아내가 고생이 많았다. 이 다음에 은퇴 후엔 여행사를 차려도 되겠다며 아내의 웃음으로 자신의 수고를 가렸다.

또 한 번 하라하면 피하고 싶을 만큼 25명의 서류를 준비하는 일은 정말로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바쁜 일 철이니 누구에게 같이 하잘 수는 없고, 괜한 이야기를 꺼내 고생을 사서 하나 하는 약한 마음도 들고, 시청과 여행사를 쫓아다니며 시간을 보낼 때마다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곤 했다. 그런 어려움도 모르고 툭툭 무심하게 내뱉는 주변의 말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일일이 마음 쓰다가는 먼길 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턱 밑에까지 찾아들 때가 많았다.

여권발급보다 어렵게 느껴진 것이 비자발급이었다.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를 받아주겠다는 제안이 있어 '넓은 세상'의 대상으로 미국이 정해지긴 했는데, 미국을 가려면 분명한 문턱을 넘어야 한다. '문턱', 지구촌이라는 이 세대에 어울리지 않는 마음의 철조망. 모두들 꿈에 부풀어 있는데 혹 한 두 어린이가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 그런 점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우리의 취지를 살리자면 다 같이 가야 하는데, 혹 비자 발급이 안 나오는 어린이가 있다면 어쩌면 미국행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혼자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다. 좀 더 확실한 가능성을 찾아 서울에서 대전으로 중간에 여행사를 바꾸는 해프닝을 벌이며 가슴 졸이는 시간들이 지나갔다. 출발 예정일은 점점 다가오는데 아직도 불분명한 비자, 비자발급의 거북함은 참으로 컸다. 언제나 그런 절차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는지.

할 수 있는 모든 서류와 추천서를 준비하여 인터뷰 날짜를 정했고, 결국은 모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 인터뷰를 했다. 학부모 서너 명이 나서 운전을 하며 서울을 다녀왔다. 그런 일 또한 아이들에겐 나라의 현실을 이해하는 좋은 공부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취지를 공감한 타인지 영사의 인터뷰는 매우 우호적이었다. 개인적으로 신청했다면 비자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라든한 학생까지 비자를 내주는 배려를 해주었다. 아, 그 학생은 부모가 이혼을 하여 외할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 아이, 이야기들을 꺼낸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가 찾아와 외손자가 갈 수 있겠냐며 눈물로 이야기하던 바로 그 학생이었다. 내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불확실한 약속을 드렸는데, 그도 같이 가게 된 것이었다. 어린 나이에 그가 겪은 아픔이 얼마인데 이런 일에 또 빠지게 되면 그 상처란, 정말 마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일이었다. 모두가 비자발급을 받게 되었을 때의 흥가분함이라니. 내려오는 길에 영현이 아버지가 몰던 차가 교통사고가 났고 두 학생이 다쳤지만 여행을 못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것

도 다행이었다. 다친 원석이와 순홍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같이 못 가게 되냐고 그것부터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함께 다녀올 정도가 되어 정말 다행이었다.

### 모아지는 정성들

한 푼 두 푼 후원금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교회소식지 「얘기마을」에 취지를 알리는 글을 실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니 당신들은 당연히 도와야 하지 않소?’ 하는 식의 접근을 큰 무례함으로 여겨왔기에 「얘기마을」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일은 몹시 주저스러웠던 게 사실이었다. 그래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내게는 그들이기에 머뭇거리며 “넓은 세상을 향하여!”를 알렸다. 「얘기마을」 반기가 부담스러우니 그만 보내달라는 한 사람의 회신에는 무안했고 아팠다.

「얘기마을」 가족들의 성원은 참으로 뜨겁고 헌신적이었다. 오랫동안 소식이 뜸했던 이들도 나 아직 단강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 정성을 다해 참여해 주었다. 우리가 든든한 사랑의 끈으로 묶여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시간들이었다.

마을 사람들과 교인들도 함께 마음을 모았다. 이 권사님이 전해주시는 30만원의 돈은 무엇보다 큰돈이었다. 권사님은 꼭 100만원을 하고 싶었다. 아마 큰딸의 갑작스런 수술만 아니어도 권사님은 마음먹은 대로 하셨을 것이다. 단돈 100원을 더 받기 위해 가까운 장을 두고 먼 장에 무거운 물건을 이고 찾아가는 것이 마을의 삶인데, 100만원이라니! 그것은 마음만이라도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단강교회에서도 100만원을 보냈다. 시골교회로서는 적지 않은 액수이지만 기꺼이 동참을 했다. 「뉴스앤조이」를 비롯한 몇몇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가장 경제가 어렵다는 이 막막한 시대에 쉽지 않은 벽을 사랑으로 넘어서는, 분명 그것은 또 하나의 오병이어(五餅二魚)였다.

## 미국 행

드디어 미국으로 떠나는 날,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학교로 모였다. 설레는 것은 어린이들만이 아니어서 학부모들과 마을 사람들, 주변에서 관심을 가졌던 이들이 함께 모였다. ‘발대식’을 갖기로 했다. 그냥 들뜬 마음으로 떠나는 것보다는 한국의 농촌 어린이를 대표하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싶었다. 면장님의 격려사도 있었고, 어린이회 회장 부회장의 선서도 있었다. 몇몇 할머니들도 나와 우리의 떠남을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인천공항까지 가는 버스는 우산교회에서 교회버스를 보내주었다. 그 또한 큰사랑이었다. 처음으로 가보는 인천공항, 바쁜 일철이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다. 어린 자녀들을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대견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으리라. 출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이들도 부모들도 눈물을 닦는 모습들이 보인다. 정말 이렇게 떠나는구나, 나도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자 긴장했던 아이들이 창 밖을 내다보며 탄성을 질렀다. 그 많은 사람을 태운 비행기가 가볍게 날아오르다니! 자신의 몸이 무거워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어떡하나, 괜한 걱정을 했던 주현이의 웃음이 유난히 밝아 보였다.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른 바로 그 순간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들의 꿈이 마침내 날개를 펴는 순간이기도 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마침내 LA 공항에 도착을 했다. 4월 30일에 떠나 밤새워 날았는데도 여전히 4월 30일, 날짜선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또한 신기한 일이었다.

공항에서는 친구 박은수 목사와 LA연합감리교회 김광진 목사님, 그리고 교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의 동부만이 아니라 서부도 둘러보고 싶은 마음에 갑작스럽게 드린 청이었지만 기꺼이 받아주신 목사님과 교회가 더없이 고마웠다. 친구 박 목사는 포틀랜드에서 일부러 내려와 2박 3일간 우리와



동행해 주었다. 퀸 메리호 배는 엄청 컸고, 유니버살 스튜디오를 구경하는 일은 너무도 재미가 있어 하루해가 아쉬웠다. 2박 3일이 너무도 빨리 지나갔다.

다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향했다. 서부에서 동부로 옮기는데 비행기를 5시간 타며 이번엔 시간선을 넘는다. 날짜선과 시간선, 세상이 넓음을 그렇게 배운다. 장시간 비행기를 타면 아이들이 지치지 않을까, 너무 지루해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괜한 걱정이었다. 피곤하면 자고, 먹고 싶은 것 달래서 먹고,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수첩에 적고, 옆 친구랑 이야기도 나누고,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 꿈의 씨앗 심기

“어서 오라구!”

워싱턴 공항에 내렸을 때 조영진 목사님은 그렇게 적힌 피켓을 들고 우리를 맞아주었다. 따뜻하고 환한 목사님의 웃음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더없이 편안하고 고마운 환영이었다. 그것은 첫 인사만이 아니어서 워싱턴에서 보낸 모든 시간이 마찬가지로 지였다. 워싱턴연합감리교회에서는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지극한 마음을 모으며 오래 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난관이라 여겼던 우리의 비자발급을 위해 교우들이 다함께 기도를 드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알차고 세심하게 준비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미국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를 둘러보고 미국의 학생들과 함께 음악과 컴퓨터 수업을 받기도 하고(우리를 위해 연주를 해준 미국 학생들을 위해 우리는 단강초등학교 교가를 불러주었다. 씩씩하게!), 조지타운대학을 방문하여 실험실에서 사람의 진짜 뇌를 만져보기도 했으며,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하기도 한 11선 국회의원인 토니 흄 의원을 국회의사당에서 만나기도 하고(그는 자신도 시골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꿈을 가지라고 격려했

다),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기도 하고,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자연사/우주 박물관, 백악관, 링컨 기념관, 한국전 기념공원, 성공회 대성당, 루즈벨트 메모리얼 등 워싱턴의 유명하고 의미 있는 곳을 두루두루 둘러보았다.

한국일보와 중앙일보를 비롯한 현지 언론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동행 취재를 하였고 몇 번 신문에 우리들에 관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비행기에서도 거리에서도 미국 사람들조차 신기하여 우리의 여행에 관해 묻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의 아이들도 “하이!” 하며 지나가는 미국사람들에게 손을 흔드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곳곳마다 교우들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어 우리 일행을 맞아 주었는데 한국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었다. 차량 운행과 안내, 내 집처럼 편안함으로 맞아준 민박가정 등 교우들의 자발적인 헌신의 모습 또한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기꺼이 기쁨으로 시간을 함께 하는 그들의 모습은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응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목사님과 교우들의 지극한 모습에 감동한 두 분의 단강초등학교 선생님은 눈물로 신앙을 결단하기도 했다. 돌아오기 전날 밤 목사관에서는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는 두 분의 선생님을 위해 눈물로 한 덩어리가 되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다.

어렵게 미국으로 건너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성공한 교우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틈틈이 있었는데, 어느 시간보다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분들이 때마다 강조했던 것은 “꿈을 가져라!” “노력해라!” “하나님을 믿어라!”였고, 조 목사님은 아이들과 구호를 정했는데 목사님이 “하나” 하면 아이들은 “꿈!”, “돌” 하면 “노력!”, “셋” 하면 “하나님!”하고 외치는 것이었다. 꿈·노력·하나님, 이 세 단어는 아이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을 것이다. 세월이 지나가도 가슴에 새겨진 그 말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꿈의 씨앗(워싱턴교회에서는 이 행사를

‘꿈의 씨앗 심기’라고 정했다)으로 심겨져 훗날 귀한 열매들로 맺힐 것이다.

3부로 드리는 주일예배를 함께 드리며 모든 예배에 설교를 했다. 한국의 농촌 이야기를 했고, 함께 보낸 시간들이 씨앗을 심은 시간들이었음을 감사함으로 확인했다. 단강의 어린이들은 교우들 앞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하는 찬송을 불렀다. 한국에서 틈틈이 연습을 하여 마음속에 외우고 있던 찬송이었다. 교우들은 감동과 감격함으로 찬송을 들었다. 꿈·노력·하나님을 한목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한 작은 농촌마을에 살던 어린이들이 세계의 심장부라는 미국의 워싱턴을 방문하고 주일예배를 같이 드리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찬송을 드리다니, 그 모습에 목이 메어 나는 축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뜨거운 눈물에 말을 제대로 이을 수가 없었다.

워싱턴교회에서는 단강교회에 큰 액수의 장학금을 전달해 계속해서 아이들을 격려하자고 했고, 며칠 함께 있었던 교우들은 많은 선물을 전하면서도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은 아이들, 이젠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그 또한 신이 나서 눈물을 닦는 그곳 분들에게 즐겁게 손을 흔들었다. 아침 일찍 워싱턴을 떠나 뉴욕에 들러 자유의 여신상,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유엔본부, 월스트리트 등을 둘러본 뒤 늦은 밤 비행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16시간의 비행, 긴장을 풀고 긴 잠에 빠지리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잠이 오지 않았다. 아무 사고가 없었다는 것을 지나 시간 시간들이 귀한 의미들로 가득찬 감격에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 귀국보고회

인천공항에 새벽에 도착을 하자 역시 학부모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울보 유빈이 엄마를 비롯해 그동안 아이들을 먼 나라에 보내놓고 얼마나 걱정들을 했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새벽에 도착하기 위해선 한밤중에 떠났을 텐데. 서로를 감싸안은 정겨운 모습들!

아이들로부터 미국 다녀온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다고들 했다. 짐작한 것 이상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음을 아이들로부터 듣고는 모두들 감격해 했다. 그런 학부모들에게 산나물을 모아주고 했다. 강원도식으로 인사를 하자고 했다. 다같이 모여 도시락을 싸가지고 산에 올라가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각자 형편에 따라 나물을 뜯어말리기로 했다. 며칠 뒤엔 정말 많은 나물들이 모였고, 단강 이야기가 담긴 책과 함께 미국으로 보내 드렸다. 나물을 받고 한참을 울었다는 김광진 목사님의 편지, 그 편지를 읽으며 나도 한참을 눈물에 젖었다.

이 일을 자랑으로 여긴 단강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보고회 자리를 만들었다. 교육장, 교육위원, 인근 학교의 교장, 학부모, 마을 어른들, 많은 분들을 모시고 보고회가 열렸다. 많은 분들이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현실로 이뤘다며 나를 칭찬했다. 마침 운영위원장의 인사시간도 있어 꼭 하고 싶었던 말을 했다.

“이 일이 칭찬 받을 일이라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했을 뿐인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 농촌에 살면서 함께 꿈을 지킨 단강의 모든 사람입니다.”

아울러 이런 일이 농촌 학교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교육장은 치사를 통해 단강초등학교는 규모면에서는 가장 작을지 몰라도 내용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학교라며 단강에서 원하지 않는 한 학교를 폐교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

모두들 박수를 쳤지만 그 말의 한계를 안다. 무슨 큰 특혜를 베풀 듯 학교를 없애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단강초등학교도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땅에 학교에 들어올 아이가 없는데 무슨 수로 학교를 지킨다 말인가. 단지 학교의 수명을 조금 더 유예해 주겠다는 어설픈 관용일 뿐, 학교

를 살리는 일과는 뻗은 거리가 있다. 차라리 그런 현실을 인정하며 이걸 어찌냐며 눈물이라도 흘리는 일이 정직하지 않을까 싶었다. 내가 교육장직을 걸고라도 학교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진 못해도.

아이들의 마음 속에 넓은 세상을 둘러보고 온 일은 어떻게 남을까. 저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 모든 일의 리더는 주님이셨다. 주님은 모두가 어렵게 생각했던 일을 너무도 아름답게 이끄셨다. 그 다음도 주님이 이끄실 것을 믿는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뿐이다.

‘거친 들에 씨를 뿌린 자는 들을 잇기 어렵나니, 아직 견딜 수 있는 곳을 가려 어찌 너의 집이라 하랴’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구절 시를 되뇌어 본다.

---

한희철 목사는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의 단강감리교회에 시무중이며 전화는 033-765-1004이다.